

광주FC-박진섭 감독 결별... 차 "팬 사랑 잊지 않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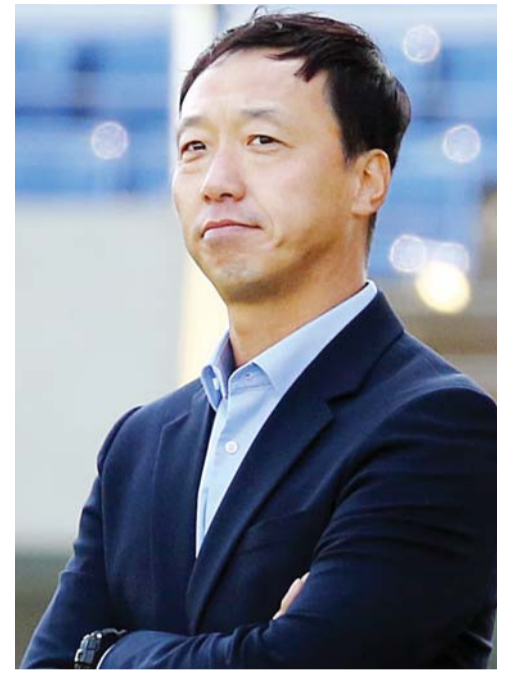
‘FC 서울’ 러브콜...박 감독, 가족 있는 서울로 복귀 희망
상호 합의 거쳐 계약 해지 가닥...구단, 후임 선임 절차 돌입

광주FC가 박진섭 감독과 작별을 고했다. 광주FC 구단은 1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상호 합의 하에 박진섭 감독과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아쉬운 작별이다. 광주는 시즌 종료를 앞두고 ‘서울발’ 소식에 곤욕을 치렀다. 한 인터넷 매체에서 박 감독의 FC서울행 기사를 보도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박 감독을 향한 ‘러브콜’이 있기는 했지만 어떤 결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불편한 보도가 나왔다. 논란이 커진 것은 아직 시즌 중이었고, 박 감독과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양측의 합의 없이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불가

능한 상황이었지만, FC 서울의 비매너 행위에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도 창단 첫 파이널A를 이뤘던 광주의 2020시즌은 어수선하게 마무리됐다. 시즌이 끝난 뒤에도 뒷집만 지고 있던 서울 탓에 광주는 혼란의 시간을 보냈다. 박 감독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가족이 있는 서울로 복귀하기를 희망했다. 광주 입장에서는 박 감독의 심정에 공감하면서도 외부 요인이 발단이 돼 ‘약속’을 쉽게 깨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했다. 결국 광주는 상호 합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계약 해지에 따른 세밀

한 부분은 합의 하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박 감독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어려운 부탁을 드렸는데 구단에서 큰 결심을 해주셨다”며 “구단과 팬들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광주 폼에서 다시 한 번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박 감독은 입장문을 통해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도 전했다. 박 감독은 “광주에서 감독을 시작한 이후 해가 세 번이나 바뀌었다. 희로애락이 증만했던 3년이 었다”며 “K리그2에서 시작해 플레이오프와 승격 좌절, 다음 해 K리그2 우승, 올해 파이널A 6위 등 이 모든 결과가 선수, 구단, 팬 모두의 노력이었지만 그래도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건 팬 한 분 한 분의 응원과 함성이었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가족과 함께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가족 곁에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저버릴 수 없어 구단에 어려운 부탁을 드리게 됐다”며 “몸

은 떠나지만 제가 감독으로서 인정받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빛고를 여러분들과 마음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기회를 주신다면 광주의 폼으로 다시 돌아와 여러분들과 새로운 빛을 만들어 나갈 시간을 늘 꿈꾸겠다”고 말했다. 박 감독은 2018년 광주의 지휘봉을 잡고 K리그2 우승, 파이널 A 등의 업적을 이뤘지만 아쉬운 작별을 하게 됐다. 광주는 박 감독의 거취가 결정되면서 정체를 있던 2021시즌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후임 감독 선임에 우선 집중한 뒤 선수단 구성, 동계훈련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 관계자는 “구단은 박진섭 감독과 계약해지에 따라 곧바로 후임 감독 선임에 절차가 들어간다”며 “구단에 자신의 철학을 입힐 수 있는 감독을 영입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토트넘 ‘대진운 곳’

FA컵 3R, 다음달 9~10일
8부리그 팀 마린FC와 원정전

손흥민(28)의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이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3라운드에서 8부 리그 팀 마린FC와 맞붙는다. 잉글랜드축구협회가 1일(한국시간) 발표한 2020-2021시즌 FA컵 3라운드 대진 추첨 결과에 따르면 토트넘은 현지시간으로 내년 1월 9~10일 중 마린과 원정 경기를 치른다. 영국 머지사이드주 크로즈비에 연고를 둔 축구팀으로 1894년 창단한 마린은 1992-1993시즌 FA컵 3라운드에 진출해 크루 알렉산드라에 1-3으로 패배한 이후 처음으로 대회 3라운드에 나선다. 예선 라운드에서 5연승을 달린 마린은 지난달 8일 1라운드에서 승부차기 끝에 콜체스터(4부)를 꺾었다. 지난달 29일 2라운드에서는 해버트 앤 워털루빌(6부)과 연장 혈투 끝에 연장 후반 15분 니얼 커민스의 결승 골로 극적인 1-0 승리를 챙겨 EPL 선두인 토트넘과 만나게 됐다. 지난 시즌 FA컵 우승팀인 아스널은 3라운드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맞붙고, 애스턴 빌라는 리버풀과 대결한다. 이 대회에서 12차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챔피언십(2부) 왓퍼드와 홈 경기를 치르며, 첼시는 모어컵(4부)을 홈으로 불러들인다. /연합뉴스

야구코치 되고 싶다면?

KBO 코치아카데미 온라인 개강
12일~30일...전문가 28명 강의

‘2020년 KBO 코치 아카데미’가 12일 개강해 30일까지 계속된다. KBO 코치 아카데미는 지도자로 첫발을 내딛는 코치들에게 필요한 리더십과 선수 지도 기술, 경기 운영, 인성 및 자질 함양 등 코칭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KBO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아카데미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대면 교육 대신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했다. 교육은 주 5일(1일 6시간), 4주간의 일정으로 해 기본 소양교육 40시간과 퍼포먼스 향상교육 80시간 등 총 120시간으로 구성됐다. 현역코치, 구단 관계자, 해설위원, 언론인, 교수·전문강사 등 28명이 강사로 나서 분야별 강의를 진행한다. 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해 매주 다뤘던 교육 내용에 대한 토의와 연구 등 그룹활동 시간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과정도 마련됐다. KBO 리그 신임 코치 예정자와 1년 차 코치, 교육 희망 코치 중 사전 신청 접수를 통해 22명이 이번 아카데미에 참가한다. 교육 시간의 85%(102시간) 이상 출석과 함께 필기시험·과제물 등의 평가를 통한 기준을 충족해야 수료할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격투기’ 러브?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리처드 로저스(왼쪽)가 30일(현지 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주 링컨 파이낸셜 필드에서 열린 NFL 풋볼 경기에서 시애틀 시호크스의 K.J.라이트의 수비를 돌파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미우리, 김기태 전 KIA 감독 2군 수석코치 영입

닛칸스포츠·스포츠호치 등
일본 언론 영입 배경 등 상세 설명

김기태(61) 전 KIA 타이거즈 감독이 일본프로 야구 명문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지도자 생활을 이어갈 전망이다. 닛칸스포츠와 스포츠호치 등 일본 언론은 1일 “요미우리 구단이 ‘이승엽의 스승’ 김기태 전 감독을 2군 수석코치로 영입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 2군은 아베 신노스케 감독, 무라타 슈이치 야수 종합 코치, 스기우치 도시야 투수 코치 등 현역 시절에 일본 국가대표로 활약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지도자로 뛰고 있다. 일본 언론의 예상대로 김기태 전 감독이 수석코치로 부임하면 요미우리 2군 코치진은 더 화려해진다. 닛칸스포츠는 “김기태 전 감독은 선수, 지도자로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 요미우리에서 2007년

부터 2009년까지 지도자로 뛰기도 했다”며 “단기 전도 자주 경험했다”고 전했다. 김기태 전 감독은 현역 시절 정교함과 힘을 겸비한 타자였다. 데뷔 첫해인 1991년 쌍방울 레이더스에서 27홈런을 친 그는 1994년 홈런왕(25개)에 올랐다. 삼성 라이온즈(1999년~2001년)와 SK 와이번스(2002년~2005년)에서 현역 생활을 이어간 그는 통산 타율 0.294, 249홈런, 923타점을 남겼다. 은퇴 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한신 타이거스에서 코치 연수를 했고, 2007년부터 요미우리 코치로 활약했다. 요미우리 코치로 일하며 당시 선수로 뛰던 이승엽과 인연을 맺었다. 2010년 LG 트윈스 2군 감독으로 부임하며 한국으로 돌아온 김기태 전 감독은 2012년 LG 1군 지휘봉을 잡았고, 2015년부터 2019년 5월까지 KIA 타이거즈를 이끌었다. 2017년에는 통합우승(정규시즌·한국시리즈)을 달성했다. 요미우리는 2년 연속 일본시리즈에서 소프트뱅크



크 호크스에 무릎 꿇었다. 2019년과 올해 모두 4전 4패의 수모를 당했다. 소프트호치는 “요미우리는 젊은 선수들이 꾸준히 등장하는 소프트뱅크에 대항하고자 2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김기태 전 감독의 수석코치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